



Web Contents



2024년 05월 11일 03시 22분

5월의 마지막 날에

2023.05.31 조회수 75 등록자 이주희

‘삼질’이라는 말은 ‘삼’이라는 말에 ‘파다, 뜨다, 뒹다, 퍼내다, 퍼담다’라는 술어를 동반하여 자신의 몸을 구부리고 낮추는 일이 됩니다. 한 삼에 한 삼을 더하는 막막하고 우직한 성실함이 배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저물 듯, 우리도 저마다 고단한 연장을 씻어내듯 저물어가는 삶의 비애와 슬픔을 함께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흐르는 것들, 그리고 저물 수 있는 것들은 도리어 평화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흘러가는 이 시간들에 감사하며 5월의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보내도록 합시다^^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문학산책0531.jpg (61 hit / 765.8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깔딱고개

다음글
진실을 실현하려는 의지

MokPo - Si
Web Contents

